[내신·수능 대비] 황진이 - <어뎌 내 일이야> 완벽 마스터 노트

교과서 지도서 지식 + 프린트·판서 핵심 + 고난도 응용 심화 통합본

1. 프린트 확인 문제 정답 (기본 개념 점검)

- **1번 정답: 후회 (또는 회한)** — 임을 보내고 난 뒤의 정서를 뜻함.
- **2번 정답: 감탄사 / 영탄법** — 초장의 '어뎌(아아)'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집약함.
- **3번 정답: 행간걸침 (또는 중의적 표현)** — '제 구태여'를 통해 복합적인 갈등을 드러냄.

2. 작품 개관 및 기본기 다지기

갈래	평시조, 서정시, 단시조, 이별가
성격	감상적, 애상적, 여성적, 고백적
제재	임과의 이별과 그리움 (보내고 그리는 정)
주제	**이별에 대한 후회(회한)와 임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**
특징	1. '행간 걸침'과 '도치법'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합적 심리를 절묘하게 드러냄. 2. 시조의 기본 형식(3장 6구 45자 내외, 4음보 율격, 종장 첫 구 3음절 고정)을 완벽히 지님.

3. 원문 및 3단계 시상 전개 구조 (서술형 대비)

초장: 어뎌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

중장: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

종장: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(情)은 나도 몰라 하노라.

구분	원문 및 현대어 풀이	화자의 정서 및 태도
초장 (후회)		• 이별 후에 찾아온 **자책과 후회** • 감탄사 '어뎌'를 통한 영탄법 구사

구분	원문 및 현대어 풀이	화자의 정서 및 태도
	어뎌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→ 아아, 내가 한 일이여! (임을 보내면 이렇게) 그리워할 줄을 내가 몰랐단 말인가!	
중장 (미련)	**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** →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(임이) 가겠냐마는, 구태여...	• 임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**미련과 안타까움** • '가랴마는'에 설의법 사용
종장 (그리움)	**보내고 그리워하는 정(情)은 나도 몰라 하노라.** → (자존심 때문에) 보내놓고 뒤늦게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조차도 모르겠구나.	• 걷잡을 수 없는 **그리움과 심리적 갈등** • 종장 첫 구 '보내고'는 **3음절** 고정 규칙 준수

4. 🔥 [킬러 문항 핵심] '제 구태여'의 중의성과 행간 걸침

이 시조에서 변형 문제나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 **'제 구태여'**를 어디에 걸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체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해석 ① **주체를 '임'으로 보는 경우 (도치법 적용)**

- **문장 구조:** 중장 끝의 '제 구태여'를 종장으로 넘겨서 연결함.
  (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/ **제 구태여**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~)
- **현대어 풀이:** "내가 있으라 했다면 가겠냐마는, **임이 구태여** (내 뜻을 저버리고 굳이) 가 버렸다."
- **화자의 심리:** 떠나간 임에 대한 **서운함과 원망**이 내포됨.

해석 ② **주체를 '화자 자신(나)'으로 보는 경우 (행간 걸침 적용)**

- **문장 구조:** 중장 끝의 '제 구태여'가 중장 내부의 서술어(생략된 '보냈다')로 연결됨.
  (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**제 구태여** (보내놓고) /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~)
- **현대어 풀이:** "내가 있으라 했다면 (임이) 가겠냐마는, **내가 구태여** (붙잡지 않고 굳이) 보내놓고~"
- **화자의 심리:** 임을 붙잡지 않은 자신에 대한 **자책, 후회, 미련**이 극대화됨.

💡 지도서 핵심: 의도적인 '행간 걸침'의 문학적 효과

황진이가 '제 구태여'를 중장의 맨 끝에 애매하게 배치한 이유는 문장 구조의 모호성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. 이를 통해 **'임을 붙잡고 싶은 사랑의 감정'**과 **'차마 붙잡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자존심(혹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)'** 사이에서 발생하는 **화자의 복합적이고 모순된 심리적 갈등**을 가장 절묘하게 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.

5. 선택지 판별용 표현 기법 & 특징 총정리

- **순우리말의 묘미:**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한자어를 남발하던 남성 사대부 시조와 달리, '어뎌', '그릴 줄을', '제 구태여' 등 섬세하고 감각적인 순우리말 중심의 시어를 사용하여 애틋한 이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.
- **솔직한 감정 표출:** 이별을 슬프지만 무조건 참아내는 유교적 인고의 태도에서 벗어나,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리움을 고백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냄 (여성 평시조의 극치).
- **기타 수사법:** 초장의 '어뎌'(영탄법), 중장의 '가랴마는'(설의법), '제 구태여'의 배치에 따른 도치법 및 중의법 활용.

6. 수능형 외부 지문 및 연계 예상 포인트

1. **작가(황진이)의 신분적 특성 연계:** 사대부 시조가 충(忠), 효(孝) 등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교훈을 담았다면, 황진이는 기생이라는 신분 덕분에 유교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**인간 본연의 감정(사랑과 이별)을 솔직하게 노래**할 수 있었음. **[비교 출제 유력]**
2. **한국 문학의 전통 '이별의 정한(情恨)' 계보 연계:**
   - 고려가요 **<가시리>**: "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 봐 보내옵니다" → **소극적 순종과 인고**
   - 김소월 **<진달래꽃>**: "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" → **슬픔의 절제와 수용**
   - 황진이 **<어뎌 내 일이야>**: "보내놓고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다" → **자책, 미련, 솔직한 후회**